

한-인니 CEPA 연내 체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차대통령, 인니·브루나이 순방 마치고 귀국

동남아 세일즈 외교·中과 대북문제 공조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7박8일 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해 7~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9~10일에는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10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넘어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으며, 전날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민만찬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동남아를 다시 찾은

으로써 재 정부가 신중경제권으로 주목받으며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아세안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동남아 세일즈외교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힌다. CEPA가 타결되면 인도네시아 시장이 사실상 모두 개방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에 밀리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개발강화, 산림 휴양, 창조경제 등 3개 양해각사(MOU) 체결도 인도네시아와 협력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의 4차례 양자회담에서 해당국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나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및 개발 협력 확대를 당부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적 '전략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등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끌어내고,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정치·외교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중국과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APEC 정상회의 도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분명 한 발언을 끌어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에 '시리아 해법' OPCW

〈화학무기금지기구〉

올해 노벨평화상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작업을 이끄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 아래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taboo)로 만드는 데 공이 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OPCW는 지난 8월 시리아 내전에서 서 대규모 독가스 학살이 터진 이후 화학무기 전면폐기라는 외교적 해법을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맡아 서구와 시리아의 전면전 방지를 도왔다. 이 기구는 현재 시리아에 국제 조사

단을 파견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보유한 화학무기를 확인·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은 개인 외에 단체도 수상할 수 있다. 과거에도 유럽연합(EU·2012년),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2007년) 등이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럽의 기관이 평화상을 받은 점과 유력 후보였던 파키스탄의 여성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16)가 수상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수상자 선정 배경을 두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케네스 배 모친

평양서 아들 상봉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1일 평양에서 아들과 상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날 평양에 온 배 씨는 "오늘 오전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며 "(아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아들이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 미리보는 국감

“총리실 공직복무관실 영남인사 편중”

강기정 의원



강원 등 기타 3명(5%) 있었다.

특히 공무원 감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감사원과 함께 공직자 비리 감찰활동과 공직자강 확립을 업무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도 영남 인사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3일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공직복무관리실에 파견된 공무원 65명 중 영남권 출신인사들이 31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외 수도권 14명(22%), 충청권 9명(14%), 호남권 6명(9%),

감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의 경우는 전체 16명 중 호남권 인사는 1명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공직복무관실은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조직으로 인적쇄신을 통해 새물결 태어나야 하는 조직인 만큼, 개편 방안대로 지역별 균형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5년간 우편물 1만8천건 검열”

장병완 의원



163명에 비해 25% 증가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검열은 국가안전

국가정보원이 2009년 이후 우편물을 1만8000여회에 걸쳐 검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이 13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기관이 의뢰한 우편검열은 모두 1만9232건으로, 이 중 96%인 1만 8558건을 국정원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찰청이 589건, 국군기무사령부가 85건 등을 의뢰했다.

특히 올해 국가기관의 우편검열 대상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내국인은 고등법원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현재까지 우편검열 대상은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국 단체였다고 밝혔다.

“한우 사육농가 11% 폐업 신청”

황주홍 의원



을 신청했다. 폐업 신청

두수는 총 25만여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 306만4000여 마리의 8.

민주당 황주홍(강진·영암·장흥) 의원은 13일 "10월 현재 전국 한우 사육농가 13만7000여 가구 중 1만5000여 가구가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해 추진 중인 폐업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 증가와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전체 한우 사육 농가의 11.2%가 폐업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900여 가구로 제일 많았고 경남, 전남, 충남 순이다. 농식품부는 11월 한우농가 폐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소유한 소를 모두 처분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MB정부 감세혜택 재벌대기업 집중”

이용섭 의원



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보다 4%포인트 낮고 중소기업

최근 5년간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2.9%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의원은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난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포인트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14%)'에도 미치지 못한 것

실효세율(12.1%)과의 격차도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1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감면율은 40.9%로 전체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 이상 높고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 쏘나타 LPG, 급발진사고 1위”

이윤석 의원



다. 삼성르노자동차 SM5 LPG와 SM3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종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LPG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81건의 급발진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LPG가 25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라는 '불명예'를 안았

다. 삼성르노자동차 SM5 LPG와 SM3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

동차 그랜저 16건, 기아자동차 쏘렌토 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급발진 의심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급발진에 대한 원인 규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비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도, 금고 선정 대가 거액 출연금”

백재현 의원



원, 기부금은 60억 500만 원

이며 전남도는 각 28억 6000만원과 6000만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자체 금고 운영을 지원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이 모두 1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민주·경기 광명시 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광역지자체 금고 운영 현황(2006~2016년)'에 따르면 광주시가 144억9400만원, 전남도는 29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출연금이 84억8900만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금고 선정 대가로 출연금 등을 받는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돈 집행의 투명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정보통신중앙서점)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5천
-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시인구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4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